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3월 고용동향 현황 및 분석

- 통계청의 '3월 고용동향'에 따르면 3월 취업자가 전년동기대비 46만 9천명 증가하면서 개선세가 지속됨.
 - 취업자는 1월 전년동기대비 33만 1천명 증가한 데 이어 2, 3월 각각 46만 9천명 증가하여 1/4분기 평균 전년동기대비 42만 3천명 증가함.
 - 공공행정·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부문에서 취업자가 4만 7천명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, 제조업 등 민간부문에서 51만 5천명이 늘어나면서 취업자가 증가함.
 - 상용근로자가 61만 7천명 증가하면서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1.8%로 높아지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됨.

- 고용률이 전년동기대비 0.5%p 상승한 58.3%로 나타났으나 청년고용률은 0.1%p 상승에 그치면서 39.4%를 기록함.
 - 취업자 증가로 1~3월 고용률이 각각 전년동기대비 0.2%p, 0.5%p, 0.5%p 상승하면서 개선됨.
 - 청년층 인구 감소, 인구구조 변화 등의 인구요인이 취업자 감소를 초래하여 고용률 상승폭을 제한하는 원인으로 작용함.

- 실업률은 4.3%로 전년동기대비 0.2%p 상승했으며 청년실업률은 전년동기대비 0.5%p 상승한 9.5%를 나타냄.
 - 고용사정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취업을 기대한 노동시장 참여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실업률이 상승함.
 - 고령층은 2월에 이어 3월에도 정부일자리 모집으로 구직활동 인구가 증가했고, 청년층은 경기회복, 기업채용, 공무원 채용 등으로 구직활동 인구가 늘어남.
 - 청년실업률은 지난 해 2월 10% 이후 13개월 만에 최고 수치인 9.5%를 기록했으며, 이는 졸업 및 취업시즌으로 인한 구직자 증가를 고려해도 높은 수치임.

(2011년 3월 고용동향, 통계청, 4/13)